

일본 장년부 체험담-고무라 지구부장

저는 유미하치본부 사셔호 지부의 지구장 고무라 라고 합니다.

경사스러운 장년부 결성기념 근행회에서 체험발표를 하게 된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9월3일 ‘간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 검사를 받은 결과, 9월27일 앞으로 2개월-길어야 3개월의 목숨으로 손쓰기가 늦은 상태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아내로부터 ‘간암’이라고 들었을 때 “이거 큰일났구나. 어떻게하면 이 숙업의 산을 타고 넘을 수 있을까” - 한동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불가사의하게 생각되는 것은 “묘(妙)란 소생의 뜻이니라” 라는 수많은 훌륭한 체험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지 불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묘(妙)의 삼의(三意) - 具(원원구족), 開(불성을 연다), 蘇生(살아난다)]

다만 이젠 급해졌구나. 제목 10시간에 도전하고 맹렬하게 절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으나 실제로는 제목이 올려 지지 않았습니다. 여간해서 결심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가족들이 필사의 제목을 해 주었습니다. 또 지구, 지부, 지역의 간부와 회원들이 창제를 해 주었습니다. 곁에서 제목을 올려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학회 회원들을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와다가 부권장 부부로 부터 아내가 자세한 지도를 받고, “스지 부회장의 지도를 받으세요” 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음먹고 아내가 10월 14일 스지 부회장의 지도를 받으러 도쿄에 갔었습니다. 그 지도 테이프를 침대위에서 들은 것이 10월 16일 오후입니다.

그 지도대로 실천한 결과 어본존의 공덕으로 오늘의 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서를 근본으로 체험을 말씀해 주시는 한 시간 반에 걸친 무시무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한부분을 소개하면서 저의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병의 원인을 밝히기를 “당신은 어본존이나 신심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바보처럼 여겨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선조의 방법(謗法;생명법률 위반-우주근본법위반)도 함께 되어 비웃은 죄장으로 ‘간암’이라고 하는 몸쓸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그리고 근행·창제의 올바른 자세를 철저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믿고 기도하면 신경에, 어본존을 비웃으면 내장에 병이 온다]

- 먼저 “선조의 방법, 우리 집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을 강하게 참회하고, 그래도 당신은 가볍게 받고 있는 것이다. 전중경수로 아프지도 않다. 식사도 할 수 있고, 마르지도 않았다. 공덕이다. 감사하세요”

- 다음으로 “맹서이다. 자신의 방법(謗法)이니까 자신의 책임이다. 자신이 만들었으니 ‘자아득불래(自我得佛來: 나는 부처의 경애를 얻고 나서 왔다-삼신여래를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경애를 열었다)’라고 자아게에 있지요. 지구장으로서 선조의 뒤편까지 자신이 어본존의 손발이 되어 광포에 매진할테니 그 실증으로서 건강한 ‘간장’으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원하세요.

- 상칠대 하칠대 상무량생 하무량생(어서 1430)의 부모가 성불되는 어본존이시다. 자신이 성불된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제목의 빛은 일념삼천으로 우주의 구석구석까지 비치게 된다. 어본존밖에는 없다. 어본존이 당신 속에 색깔도 모양도 없이 용해되어 있다. 그래서 십계라고 말하겠지요. 십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계 불성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근이불견(雖近而不見: 부처님은 가깝게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이라고 경문에 있지 않습니다.

- 부처의 불성을 나타내는 의식을 근행·창제라고 합니다. 근행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성은 나오지 않는다. 이 불성, 어본존님과 같은 역용이 나와서 병이 치유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어본존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해야 한다. 아무나 만날 수 없는 어본존이시다.

- 어본존은 나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의 일념에 따라 일체가 결정되는 것이다. “ 이 어본존을 전혀 밖에서 구하지 말라. 다만 우리들 중생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남묘호렌게교라고 봉창하는 흥중의 육단에 있느니라.” 라고 어서말씀에 있습니다. 가슴속, 육체 속에서 ‘물썸물썸’ 어본존과 같은 생명이 솟아오른다고 생각해라. 솟아오르게 되면 나 자신의 불성이다.

- 이번에는 그 솟아오른 부처의 생명을 뺏속까지, 혈관 속까지, 온몸 구석구석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이다. 골수까지 스며들지 않는 제목은 큰 손해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제목을 스며들게 하여 몸속을 부처의 세계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기원을 집중시켜 간장(아픈 부분)까지 제목이 이르고 스며들게 하면 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

- 어본존님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공덕을 100억원이라고 한다면 암 같은 것은 100원이나 200원으로 낫게 된다. 어본존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어본존은 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가라. 이것이 어본존이시다. ‘아역위세부 구제고환자(我亦爲世父 救諸苦患者: 부처님은 이세상의 아버지시며, 모든 고뇌와 슬픔을 구제해 주신다)’라고 경문에 있지 않은가.

- 제목으로 몸속을 불도저로 청소하는 것 같이 ‘빙빙’ 돌리면서 세탁하여 행구고 행구어서 암같은 나쁜 병을 쫓아내라. 목표를 공격하는 제목을 올려라. 우리들의 머리는 ‘묘(妙)’이고 목은 ‘호(法)’이며 가슴은 ‘렌(蓮)’이고 배는 ‘게(華)’이고 다리는 ‘교(經)’이니라. 이 오척의 몸이 “묘호렌게교”의 오자, 우리들이 “묘호렌게교”오자 라고 개불지견(開佛之見: 불계를 여는 것을 성불)했을 때 즉신성불 하느니라. 개(開)란 신심의 이명(異名)이니라.(우리몸 안의 불성을 여는 것을 즉신성불)

- 이것을 자각했을 때 기뻐서 기뻐서 견딜 수가 없게 된다. 남묘호 렌게쿄는 사자후라고 말하지요. 어떠한 병, 어떠한 문제라도 올테면 오라. 전부 치유하겠다. 이것이 어본존님이시다. 목이 말라 물을 구하듯 그리운 사람을 보고 싶듯이 ‘심회연모 갈앙어불(心懷戀慕 渴仰於佛: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를 그리워하며, 갈앙하다)’ 한번 한번의 제목을 ‘소중히 소중히’ - 결코 수가 문제가 아니다. 시간도 아니다. 골수에 스며들어 가는 것과 같은 ‘맛있다, 맛있다’ 라는 제목을 올리세요. ‘차대양약 색향미미(此大良藥 色香美味: 이 대양약은 색도 향도 맛도 좋은 것이다) 라고 있지 않은가.

- 어본존이 우주속의 모든 엑기스를 전부 모아 가지고 와서 갈아 만든 대양약이다. “개실구족 도사화합(開悉具足 擣籩和合; 색깔도 맛도 모두 갖추어진 약초를 구해 혼합해서)” 이라고 있지요. 다만 ‘맛있다, 맛있다’ 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제목을 올리세요. - 그러나 여간 해서는 그렇게 잘되지 않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 졸립다 귀찮지만 오좌근행을 할까. 밤에는 삼좌근행을 조금하고, TV를 조금 보고 빨리 잠을 자야지. 입으로만 빼끔 빼끔하고, 이러한 근행으로는 골수까지 혈관 속까지 스며들지 않는다.

- 그런 제목은 못쓴다. 경문에도 있지요. ‘행도불행도(行道不行道: 부처의 가르침을 열심히 믿는 것을 행도, 불행도는 자행화타에 걸쳐 태만한 행위)’ - 행도(行道)란 환희와 확신의 제목이다. - 不行道는 싫어하는 제목, 게으름 피우는 제목, 원질하는 제목이다. - 아무리 형식만으로 해 보았자. 그것은 모두 불행도이다. 자기 자신의 일념대로 되지 않는다. ‘명 의조람(冥 의照覽; 부처는 우리 속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 이라고 있지요. 다른 사람이 보고 있든지 없든지 착실하게 하는 것이다.- 3주만 해보세요.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상과 같은 테이프를 듣고

아-아- 나는 방법, 대방법을 저질러 내 몸속의 부처를 용현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년이나 신심을 해도 진정한

근행의 방법, 기원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구나!

아버지도 간장암, 어머니는 정신분열증, 동생은 위암, 여동생은 심장병으로 죽고- 선조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20년간이나 타성에 젖은 신심을 했으니- 어본존께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참으로 반성하고 참회했습니다. 눈물이 그칠 수 없이 흘러내려 가족들 앞이었습니다만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밤에는 테이프를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듣고, 어서를 배독하고 눈물이 나와 할 수 없이 이불을 머리에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하여 10월 22일 저녁 근행 때부터 스지 부회장의 지도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학회원임을 밝히고 신심을 하고 있으므로 아침과 저녁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반드시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치의의 허가를 아내가 받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이러한 허가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의사로서는 11월말쯤에는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입원하고 있어도 약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주사 한 대도 없었습니다. 다만 검사한다고 철판으로 몇 군데 묶어놓고는 그냥 두었습니다. 검사일 이외에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퇴원하는 날까지 비오는 날이나 바람이 부는 날에도 한결같이 집으로 가 집안의 어본존님께 창제를 하였습니다.

지도대로 실천하니 일주일의 지나자-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의사로부터 “ ‘암’이 녹아 나간 것 같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주째 들어가니 ‘맛있다, 맛있다’ 제목은 바로 이것이로구나! 아-! 스지 부회장님은 이러한 근행, 창제를 말한 것이다.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대환희의 창제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힘차게 약동하는 듯하였습니다.

“암이 무엇이냐! 어본존의 광대심원한 힘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자신이 만든 방법과 죄장이 아닌가! 나의 제목으로 없앤다. 죽을 수만은 없다. 광포를 위해서 실증을 보여 주세요! - 그 실

증을 가지고 어본존님의 손발이 되어 선조의 뭇까지 힘쓰겠으니, 그 사명으로서의 대실증을 보여 주세요” 라고 기원하니 실로 무시무시한 생명력이 용솟음 쳐 올랐습니다.

17일째쫄 명치 쪽에 있던 어린애 주먹크기의 납덩어리와 같이 무겁던 것이 말끔히 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겼다. 나는 암을 극복했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참으로 인과구시이며 불가사의한 일법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념의 인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념을 어떻게 갖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는 법칙)

생명적으로 이미 암에서 이겼다. 이제부터 더욱 더욱 좋아진다고 - 어본존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리고 또 올려 나갔습니다. 감사와 환희는 더욱 더욱 생명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3주째쫄에는 이제 다 나아지지 않느냐고 생각할 정도로 몸이 가볍고 불쾌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입원 중에는 매일같이 불법대화, 신문계몽, 회원을 순회-격려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다른 병원으로 또는 우리지구에 들어가 나의 실증을 가지고 격려하며, 정말 기뻐서 환희차 웃으면서 돌아다니며 흥교했습니다. 흥교가 이처럼 환희로운 줄은 여러 체험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았으나 처음 몸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 스지 부회장에게 중간보고 하고, 12월 12일에는 이즈미 부회장의 지도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 신심은 확신이구나 - 이제는 꼭 낫는다는 절대적 확신이 들었습니다. 과거 원원겁 이래의 나의 적과, 나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방법죄장을 소멸하는 자신과의 싸움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한 생명이 있는 한 싸워 대복운에 살아가겠습니다. 간장암 말기의 인간이 지도대로 실천한 결과 소생하여 살아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